

낙농수입개방! 그날이 오기전에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낙농인 전체의 협동이 요청된다.

“**개방** **개방** 끝없는 길,
지루한 황
토밭길”하고 나병 시인 한하운이
한탄했듯이 우리 낙농의 앞길이
막막한데 또 한차례 파동이 몰려
올 것 같고 개방화, 국제화의 파
고는 높아만 가고 있다. 모든 여
건이 선진국에 비하여 열악한 이
강토에서 낙농을 한다는 것은 어
찌면 절독거리며 걸어가는 문둥
병 환자같은 운명인지 모르겠다.
지난 10월 10일엔 미국 무역대표
부 칼라힐스 대표가 내한하여 쇠
고기를 위한 농산물의 개방을 재
촉하였다. 곧 이어 10월 19일 미
국 상하양원의 영예로운 합동회
의에서 우리 대통령은 “우리 경
제는 개방, 자유, 자율화로 과감
히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4
~5년 안에 서구 수준의 개방을
할 것입니다”고 약속하였다. 10
월 27일엔 제네바 GATT에서 국

진 두 현

이전 낙농업협동조합

제수지에서 흑자를 내는 국가라
는 이유로 수입 규제를 가할수 있
는 개발도상국의 대열에서 졸업
장을 타게되었다. 97년까지 유예
기간을 두되 그 이후엔 전면적으
로 개방하기로 되었다. 11월 2일
에는 우리 실무진이 미국으로 가
서 쇠고기 개방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사태는 준엄하고 급박하
게 변하고 있다.

우리의 생산 유제품은 현재로
서는 유당, 유장분말, 탈지분유
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보호되고
있다. 세가지 합하여 15,000톤 내

지 20,000톤이 수입이 허용되고
있으나 이 숫자는 우리 생산의
10%를 넘는 것으로 클 뿐아니라
이것의 횡류(橫流), P.X를 통한
수입, 또는 의제품(코코아에 섞인
분유 등)도 있어서 정확한 파악
은 어렵다. 아마 정부에서 파악
되고 있는 숫자 이상으로 수입되
고 있는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현재 원유가를 볼때 일본이 우리
와 비슷하고(북해도산 75엔/kg
+장려금 8엔/kg...83엔-381원
상당) 뉴질랜드, 호주는 우리의 3
분의 1, E·C권은 우리의 반액으
로 생산되고 있다. 일본은 엔 고
현상으로 특수한 상황이고 대체
로 보아 우리 우유값은 세계 우유
값의 배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우유품질까지 포함하여 따진다면
차이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현
재 채화량은 12,000톤 이라고 보
는데 이것은 이상구씨의 강연이

원인이라고 하고 그간의 판매가 인상이 원인이 된다고도 보고 있으나 유제품의 가격의 세계시장 가격과의 차이에서 생겨난 체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방호벽을 쌓아 준다고 하여도 부단한 누수현상은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참깨 값이 비싸니까 참깨의 밀반입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서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상품의 관통력은 탄환의 그것과 같다고 경제학자는 말하였다. 누수현상을 막는 근본적인 길은 “좋은 상품을 싸 값으로” 생산하는 것 밖에 없다.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시장가격 메카니즘(기능)의 소치인 것이다. 시장가격 메카니즘에 따르는 것이 그로바리제이션, 곧 개방화고 국제화인 것이다. 지금 온 지구상에 이 시장가격 메카니즘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가 한 경제권으로 가까워지는가 하면 E·C는 92년부터 경제적으로 보다더 완벽하게 통합키로 서두르고 있다. 태평양 경제권의 구상도 여기서 울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소련이 변하고 중국 천안문 사건이 터지고 동구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깊이 파고 보면 시장 경제의 메카니즘이 정보화 사회를 맞아 빚어지게 된 소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바람은 필연적인 경제법칙으로 되어

정부가 세운 보호벽을 무너뜨리고 닥아올 것이다. 아니 지금도 불어오고 있다.

쌀, 보리와 함께 우유는 정부의 가격지지 품목으로 설정됨으로써 또는 수입제한조치로서 두터운 보호를 받고 있다. 쌀, 보리, 우유는 농작물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하고 우리 또한 보호받게 될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국내물가와 소비자의 형편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쇠고기, 오렌지의 개방을 두고 10년동안 마찰을 일으켜 오다가 지난 여름엔 할 수 없이 2년 뒤엔 완전 개방키로 항복한 일본의 현실을 보고 짐작할 수 있다.

우리도 수년 안에 적어도 서구 수준의 낙농을 이룩해야 될 역사적 운명에 처해 있다. 한국낙농이 살아남느냐 쓰러지고 마느냐 하는 운명의 시한이다. 이 기간 안에 생산자는 각자 창의를 최대한 발휘하여 협동체로 뭉쳐야 하고 정부나 국회에서는 각별한 배려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낙농의 국부치료가 아닌 환골탈태적 구조개선이기 때문에 고식적인 조치로서 될 일이 아니다. 예산타령으로 회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자금으로도 억대로 쳐서 한자리, 두 자리가 아닌 적어도 세자리 이상이어야 된

다고 본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할 일이다.

지난해의 우리나라 국제수지는 140억불의 흑자였다. 이것은 9조 2400억원의 거대한 금액이다. 독자가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 화폐 만원짜리를 146,625km 경부고속도를 348번 이은 돈이다.

이 흑자 때문에 농업생산에 개방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올해의 흑자는 아직 알수 없으나 70억불로 낮아진다고 하여도 4조 6천억원이다. 우리나라 우유생산 연간 1백 80만톤은 380원/kg로 환산해 보면 고작 6,840억원이고 이것은 국내 매출 랭킹 35인 제일제당의 1년간 매출액 6,880억원 정도며 올해 예상흑자 70억불의 15%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다.

수출흑자는 그것이 일부나마 마땅히 농업부문으로 환원되었어야 할 것이었는데 그렇지 못하였기에 부동산 투기, 증권시장의 파열, 과소비의 역기능만 연출하고 말았다.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부문에는 초지확장, 경지정리, 도로, 교량, 전기, 농기계, 농업후계자, 폐수처리, 농업단체 등 체제전반에 걸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한국농업을 살리고 낙농을 도태의 운명에서 살려낼려는 의지가 있다면 자금의 투입에

인색하거나 주저해서는 안된다.

미국에서는 쌍둥이 적자에 골치를 썩히면서도 매년 200~300억 불에 달하는 농업보조가 있다. 농업생산품이 남아나는 데도 농업보조를 하고 있다. EC에서도 곡물이나 축산물의 지역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것에 대해서는 수출환불금의 명목으로 수출을 도우고 있다 한다. EC에는 약 2년치의 재고채화를 지니고 있어 수출버터에는 2,460불/t, 탈지분유에는 1232불/t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 생산조건이 나쁜 산지나 외딴섬의 경영에 대해서는 1ha 1두당 100마르크(약 44,000원) 내지 285마르크(124,000원)의 보조금이 주어진다고 한다.

우리는 현재 1만 2천톤의 체화로서 쪼쪼매고 있다. 이것은 원유 12만톤으로 456억 정도다. 우리나라 순이익 순위 10위인 대한투자신탁의 순이익 482억 정도에 지나지 않다.

서독의 헨리크스마이어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독 국민경제에 있어서 점하는 농업의 위치는 GNP의 2%정도다. 이런 판국에서 농산물 과잉 같은 농업의 비효율적인 일이 가령 20% 있었다하자 그것은 GNP의 0.4%에 불과하다. 이것을 허용하느냐 않느냐에 서독 농업의 존속유지가 걸려있다고 보는데 서독의 재계

에서는 허용하는 방침이고 또 납세자, 소비자, 농민, 농업단체간에 농업의 유지 존속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국민적 합의의 배경에는 ① 농본주의의 역사적 전통, ② 도시와 농촌의 친근성 ③ 농촌경관유지의 중요성 ④ 농촌의 문화적 유산계승의 중요성이라는 국민 전체의 농



업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적절한 말인가? 국민 총생산의 1,000분의 6에 불과한 우유에 가사 2할의 과잉에 있었다 해 보았자 국민 총생산의 1,000분의 1, 2에 불과하다. 농업의 명맥을 살려야 한다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과감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제약이 많은 예산

만으로 타령할때도 아니고 국과장의 실무진에만 맡길 일도 아니다. 농업을 바로 잡을 재원은 바로 흑자에 있고 그 흑자는 농업을 위하여 쓰여질 논리적 의무와 명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낙농의 주체는 낙농가요 낙농단체다. 유가공업도 포함하여 주체자들의 협동과 단결이 요청된다. 그런데 낙농진흥법이 아직 국회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낙농건설의 지침이 되고 유일한 현장이 될 법안이 아직 국회에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낙농이라는 공동운명을 실은 배가 험난한 항해로 떠나는데 배안에서 싸운다면 이같이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로서 힘을 합쳐야 된다.

각개 낙농인은 낙협이나 농협으로 협동되어야 한다. 좋은 소를 늘리고 사료비를 절감하는데 머리를 써야하고 기계의 공동이용, 어려운 작업의 공동화로 나아가야 한다. 영세성을 면하는 길은 협동화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푸르른 미래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끝없는 황토밭길을 지향없이 걸어가는 천형의 문둥병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 함께 두등실 춤추며 노래할 날이 있을 것이다.